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해 환경지향적 에너지 사용과 환경도시 건설을 지향하는 솔라시티(Solar City)로 선정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국제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대구시를 방문하여 월드컵 준비사항을 들어본다.

### 줄이어 대규모 국제행사

우리 대구는 2001년 국제청년회의소(JCI) 대구 아시아·태평양대회(5. 21~5. 26)를 시작으로 대륙간컵 축구대회(5. 30~6. 10), 2002 대구 섬유박람회(3월 말, 10월초에 2회 개최), 2002 월드컵 축구대회(5. 31~5. 26), 2003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8. 21~8. 31)등 연이어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통해 전 세계인은 대구를 주목 하게 될 것이며, 세계 속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월드컵 준비

도시 인프라(infra) 구축에 집중 투자해온 우리 대구시는 금년부터 속속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오는 4월에 국제규모의 대구 전시컨벤션센터(EXCO

## 이름다운 도시! 품위있는 도시!

# 대구



김이민 학(대구광역시 월드컵지원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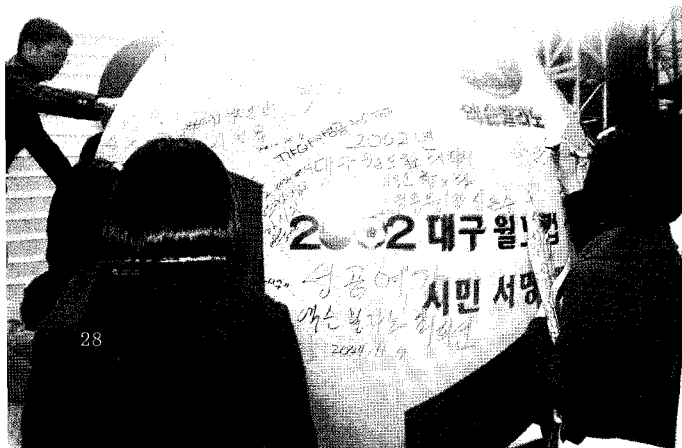
KOREA JAPAN

## 새 천년의 대구!

살아 숨쉬는 힘찬 맥박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Daegu)가 서울 코엑스(COEX)에 이어 두 번째 개장되고 5월엔 국제선 신 청사 준공 및 국제선의 신·증설로 대구 국제공항시대를 열어갑니다.

특히, 국내 최대규모의 대구종합경기장이 5월에 개장되어 5월 30일 세계대륙별 우승팀(프랑스,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카메룬, 호주)과 주최국 (한국·일본)이 벌이는 대륙간컵축구대회가 대구에서 개막합니다. 이 대회를 통하여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대회를 점검하고 완벽하게 치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경기장의 특징

지구의 이미지를 경기장 지붕으로 형상화하여 전세계인을 한 지붕안에 표용하는 모습에 자연 경관의 연속성 및 조화로운 인공조형물을 형상화한 외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민가 지붕의 아름다운 곡선미를 도입한 지붕은 관중석의 74%를 자연채광이 가능한 테프론코팅(PTFE)의 지붕막을 적용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6만 6천여석 규모의 관람석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동선체계를 구축하여 관중퇴장 시간을 약 7분 이내로 최소화하였고 컴퓨터 제어를 통한 최적의 음향 및 고화질의 진광관을 설치하였다.



## 한국관광의 3대 불편요소 해결방안

월드컵 대회 중에 언어소통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500여명의 전문통역요원을 오래 전부터 양성 관리해 왔으며, 이미 2,000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교육까지 끝내놓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해소대책으로 경기장 진입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3개노선의 광역대로(50m폭)진입로를 개설하고, 셔틀버스 운행 (160대), 자가용차량 2부제, 10,000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환경대회를 지향하는 우리시는 화장실 문화의 선진도시로 가꾸어 가기 위해 모범 화장실 사진전시회, 화장실 문화개선 발표회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정비에 임하고 있으며, 관광지 화장실 정비사업 11개소, 공중 화장실 372개소를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월드컵영예홍보위원-왼쪽부터, 이동국 축구국가 대표의 부친, 김태욱(가수), 왕종근 (아나운서), 손태영(미스코리아), 정우혁(HOT멤버)

## 사후 경기장 활용방안

506만평의 대구대공원 내에 위치하여 대공원 개발 계획과 함께 추진되는 경기장은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르고 난 후 주경기장 관람석 하부에는 8천여평 규모의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이 조성됩니다. 경기장 인근엔 가상현실 체험형 홍보관과 기념관, 자동차극장과 암벽등반 연습장, 번지점프 및 환상형 놀이시설도 유치되며 야외 결혼식장과 야외공연장, 시민광장 조성공사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 향후 발전계획

줄줄이 이어진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므로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변모해 갈 것이며 21세기 대구는 이미 새 천년을 향한 힘찬 날개짓을 시작 했습니다. 삶의 터전이 되는 환경에서부터 경제·문화·복지·국제교류에 이르기까지 보다 진취적이고 활기찬 세계선진 문화도시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인류의 행복을 위해 웅대한 꿈을 펼쳐온 대구는 세계로, 미래로 열린 힘찬 발걸음으로 더 큰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